

단풍객의 녀두리

元 興 均

추월색(秋月色) 밝은 달이 마냥 비추는 늦가을 어느 아침에 내가 관여하는 삼락회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행 40여명의 길손들은 오붓하게 서울을 떠났다. 서울근처 등산의 오솔길에는 이미 우수수지는 낙엽성(落葉聲)이 들렸지만 내장산을 향한 우리는 1박2일동안 단풍을 찾아 홍엽(紅葉)에 취해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장산의 절 가까이는 아직도 만홍(滿紅)은 못된양 하여 도중에 금산사(金山寺) 옛 절을 찾게 되었다.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백제문화의 소외론이 자자해 지는 때 이곳은 국내의 가장 오랜 목조 사찰로서 미륵불의 입상(立像)을 실내에 모신중에서는 그 신장이 가장 높은 점으로 유명하다.

내장사에서 하루밤을 냉기속에서 지새고 다음날 아침에는 백양사(白羊寺)로 향했다. 그런데 막상 당도하고 보니 과연 백제시대에 창건된 가람이라 그런지 그윽하고도 아늑하며 아담하고 정한한 분위기 속에 불타는 단풍이 한창이었다. 학봉을 중심으로 옛날 정토산(淨土山)이 지금은 백양산으로 불리우는 산록은 그야말로 정답고 아름다운 절승을 이루고 있었다.

참으로 오랜간만에 마음껏 감동과 감명속에 젖어 보았으니 이런 감격마저 없었던들 우리의 늙음은 아마도 배가(倍加)되었을 것이요 나그네로서의 동경(憧憬)과 꿈은 오직 허사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였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지닌 사찰을 세곳이나 순례

(巡禮)하다 보니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가장 짧은 경전으로 “반야바라밀다심경” 가운데 그 핵심적인 대목 「오운이 개공하여도 일체 고액이라」(五纏皆空度一切苦厄) 아홉 글자속에서도 공(空)자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색즉시공(色卽是空)이오 공즉시색의 구절이 특히 상기되는 것이었다.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森羅萬象)물질의 세계와 눈에 아니 보이는 마음의 세계를 색과공의 세계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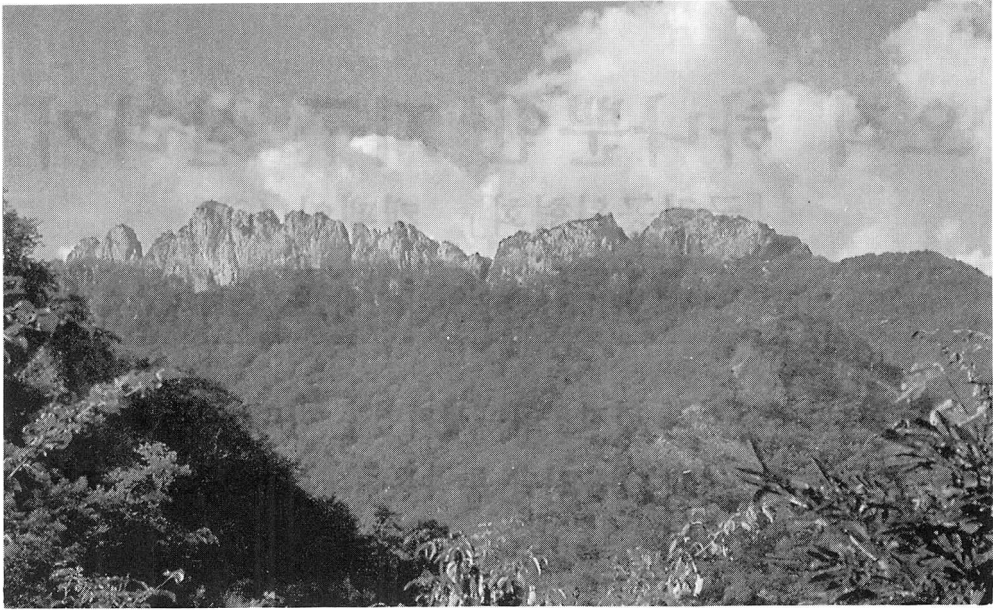
이 두세계는 서로가 조화(調和)되고 발란스가 맞아야 된다는 것이다.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져도 안되고 어디까지나 중도(中道)를 유지하면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세상이 있고 그리고 인생도 있다고 함은 만고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시각(視覺)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모든 형체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깨어지고 만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그 누가 소중히 여기는 오래된 차종이나 화병을 놓고 보더라도 언젠가는 깨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 관장한 단풍도 틀림없이 얼마 안가서 지고 떨어지며 낙엽의 소리 가을바람에 따르리라.

뿐만아니라 그 단풍에 어울려서 노래하는 부인네들의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멋지게 춤을 추는 즐거운 모습도 또한 내일이면 번민과 오뇌의 안타까운 삶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색즉시공의 도리이다.

이와 아울러 느껴지는 것은 요근래 젊은이들



의 노인에 대한 대접의 소홀함이다. 그 이유로
는 자신들의 젊음과 건강이 언제까지라도 그대
로 고스란히 있을줄만 착각하는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또 한번 색즉시공의 이치
를 모르고 색즉시색(色卽是色)으로 잘못알고 있
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물론 그렇다고 마음의 세계인 눈에 아니 보
이는 면만이 가장 으뜸이요, 눈에 보이는 물질
은 아무 의미도 없고 그리고 전혀 없어도 될 것
인양 믿는다거나 그래서 정치나 경제 그리고 기
타 일용잡화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고는 못한다. 여기에 공즉시색(空卽是色)의 깊은
뜻이 숨어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다.

요새인류가 지닌 원자에너지 같은 것도 그
아무리 훌륭하고 준귀하다치더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의 평화와 복지사회를 떠나서 잘못사용 한
다고 하면 결국 이성에 핵전쟁만 유발하고 말것
이 분명하다.

그리고 마치 오늘의 이 만산홍도(滿山紅濤)의
경치에 취하여 그 기슭에서 놀이하는 중생들처
럼 얼마안가서 말라 떨어져 버리고 슬프게 조용

해지는 것과 같다.

사실 도시사회에 사는 시민들 그리고 이곳에
찾아드는 사람들 중에는 현재 크나큰 시련을 겪
고 있다고 할수가 있다. 그것은 물질을 너무나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과 시간을 소중히 여길줄을 모르기 때문
이다. 절간의 부엌가에서는 배추 한잎도 허수히
다루지 않고 아껴서 깨끗이 씻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사물만을 뒤쫓아 가면서
눈에 아니 보이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찾으려
들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새로운 인생관이나
처세관 그리고 세계관이 정립되어야 할 때가 왔
다고 하겠다.

그럼으로 비록 짧은 글일망정 이 글이 단풍
나그네의 부질없는 녀두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
는 마음 새삼 간절하다.

▲ 필자소개

前 서울敎大學長, 世宗大學校總長 名譽文學博士
米壽(八十八세)의 春秋에도 老益壯하시어 10번째
著書 집필중